

신인·상금·다승왕... '신지애 시대' 알리다

LPGA 챔피언십 아쉬운 8위... '올해의 선수' 오초아에 1점차 패

한국여자골프의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가 24일 시즌 마지막 대회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챔피언십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아깝게 놓쳤지만 아무도 생각 못한 짧은 시간에 '준비된 골퍼'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줬다.

신지애는 올 시즌 3승을 올리며 가볍게 신인왕을 확정지었고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공동 다승왕에 오르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국가대표를 포기하고 프로에 뛰어든 신지애는 2006년부터 한국 무대를 평정하며 무서운 10대로 떠올랐다. 2008년이 끝나갈 무렵 한국여자프로골프계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로 진출하는 신지애의 성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지난 해 신지애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한 시즌 3개 메이저대회 석권을 포함해 7승, 시즌 상금 사상 첫 7억원 돌파, 3년 연속 상금왕, 정규 멤버가 아니면서도

LPGA 투어 세차례 우승이라는 기록들을 달성했다. 올해 LPGA 투어 정식 멤버로 나선 첫 시즌에 올해의 신인상을 차지하며 여자골프의 정상에 오른 신지애는 어떤 상황에서든 밝은 웃음을 지었지만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여의는 아픔을 딛고 이뤄낸 성과였기에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신지애는 2009년 2월 자신의 첫 대회인 호주 ANZ레이디스마스터스를 메인 스폰서로 고가 없는 모자를 쓰고 치렀다. 대회를 앞두고는 감기 몸살 때문에 병원에 누워있기도 했다. 시즌 첫 대회부터 한차례 흥역을 치른 신지애는 마침내 미래에셋이라는 든든한 후원사를 얻었고 미국 하와이에서 LPGA 투어 멤버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시즌 개막전인 SBS오픈에 출전한다.

결과는 2라운드에서 9오버파 81타의 최악의 샷을 날리며 중간합계 9오버파 153타라는 스코어로 어이없게 첫 탈락했다.

신지애는 "쓰디쓴 보약을 먹었다"며 가볍게 털어버렸고 3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HSBC 위민스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승을 올리며 자신의 존재를 다시 세계에 알렸다.

하지만 대회만 출전하면 우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한국 팬들로서는 싱가포르 대회 이후 좀처럼 들리지 않는 우승 소식에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6월 열린 웨그먼스LPGA대회 우승으로 이같은 우려를 잠시 잠재우기는 했지만 여름을 지나면서 신지애의 샷은 예전의 위력을 찾지 못했다.

새로운 스윙 코치 스티브 맥라이(호주)와 호흡을 맞춘 뒤 컴퓨터 퍼트도 살아나면서 9월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시즌 세번째 우승과 삼성월드챔피언십 3위 등 굵직한 대회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다시 비상하기 시작했다. 경쟁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신인왕을 수상한 신지애는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을 제치고 여제에 등극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의 안방에서 열린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 공동 3위에 올라 상금왕을 확정했다. 이제 남은 것은 올해의 선수상. 신지애는 24일 시즌 마지막 대회 LPGA 투어 챔피언십에서 치열한 순위 싸움 끝에 오초아에게 올해의 선수상을 넘겨 줬지만 한국여자골프사에 큰 획을 그었다. /연합뉴스

신지애 프로필

1988년 4월 24일생
스포츠: 미래에셋 자신운동
키: 160cm
발레: A급
골프: 2006년 한국여자프로골프(LPGA) 입회

주요 경력

2008 LPGA투어 브리티시 여자오픈 우승
LPGA투어 마르노클래식 우승
LPGA투어 ADF 챔피언십 우승

2009 LPGA투어 HSBC위민스 챔피언십 우승
LPGA투어 웨그먼스 LPGA
LPGA투어 P&G뷰티 NVM에어컨 챔피언십

2006 LPGA투어 신인왕
LPGA투어 상금왕
LPGA투어 올해의 신인왕

2008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다승왕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LPGA투어 상금왕
한국여자프로골프 대상 국내 대상

신지애 올 LPGA 우승 퍼레이드

1승 HSBC챔피언십 2승 웨그먼스 3승 P&G뷰티



미국 텍사스의 휴스턴시안 골프코스에서 열린 'LPGA 투어 챔피언십' 최종라운드 18번홀에서 신지애가 버디를 놓치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목표 '올해의 선수' 있어 다행"

골프 시작하고 두번째 눈물 흘린 신지애

"골프 시작하고 오늘 두 번째 운 거예요" 평소 낙천적인 성격으로 잘 알려진 '골프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올해의 선수를 코앞에서 놓친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다.

신지애는 "제가 전체적으로 너무 안 패서 그렇게 됐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아쉬워하며 "그래도 올해 목표로 했던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괜찮다"고 웃어 보였다. 그러나 신지애는 "오늘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는 않다"고 양해를 구하며 올해의 선수를 내준 아쉬움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신지애는 "퍼트가 좋지 않았고 운도 따르지 않았다. 버디 기회가 여러 차

레 있었지만 살리지 못했다"며 "리더보드를 자주 확인했기 때문에 상황은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뒤 숙소에서 다시 만난 신지애는 기분이 한결 나아 보였다. 신지애는 "아까 골프장에선 거의 인터뷰 거부하다시피 했는데"라며 "사실 아까도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순간에 그런 기분 때문에..."라고 말끝을 흐렸다. 인터뷰 도중 한국에서 걸려오는 전화 인터뷰 요청에도 밝은 목소리로 "여보세요"라고 하다가 "너무 밝은 목소리인가"라고 스스로 되묻기도 할 정도였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

다. 신지애는 "중1 때 85타 치고 예선 탈락해서 울고 난 뒤로 골프 때문에 울어보기는 두 번째"라고 말했다. 17번 홀이 어렵지 않았느냐고 묻자 "사실 그전에 몇 번이나 버디 기회가 왔는데 살리지 못한 것이 더 어렵다. 오늘은 정말 '이건 안 들어갈 수가 없겠다'고 생각한 것도 돌아 나오더라"고 답했다. 신지애는 "내년 시즌에는 올해의 선수라는 목표를 갖고 할 수 있게 왜 오히려 다행"이라며 2010년을 향한 각오를 다졌다. 반면 오초아는 "4년 연속 올해의 선수가 됐지만 투어 기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선수로 뛰는 동안은 계속 정상적 자리를 유지하고 싶다"며 "계속 기록에 도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 다음 시즌도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올해의 선수' 가른 17번 홀

신지애 '통한의 보기' 파만 했어도...

17번 홀(파3)에서 승부가 갈렸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09시즌 올해의 선수의 주인공은 마지막 대회 마지막 날 최종 라운드까지도 운과를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LPGA 투어챔피언십 17번 홀에서 신지애(21·미래에셋)와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의 희비가 엇갈렸다. 24일(한국 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휴스턴시안 골프장(파72·6천65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 16번 홀까지 11언더파로 단독 2위에 올라 있던 오초아가 17번 홀에서 티샷을 날렸지만 벙커에 빠졌다. 실상가상으로 두 번째 샷으로도 공을 벙커에서 꺼내지 못한 오초아는 많으면 2타 이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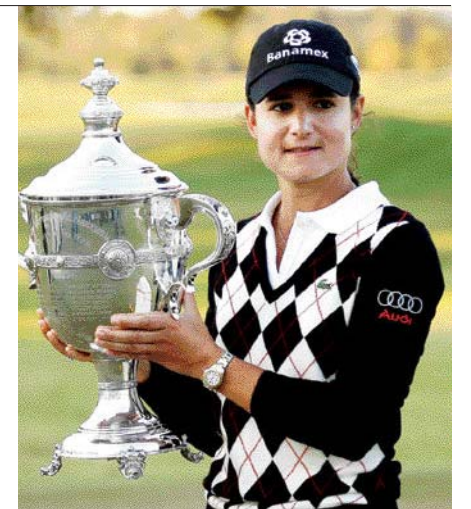
1.2라운드에서도 이 홀에서 연속 보기를 했던 오초아는 세 번째 샷만에 공을 그린에 올렸으나 이마저도 홀과 거리가 3m가 넘어 더볼보기 가능성이 높았다.

보기로 막는다면 공동 2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더볼보기가 되면 4위 이하로 떨어질 판이었다. 오초아가 4위 이하로 내려간다면

신지애의 성적과 관계없이 올해의 선수는 신지애의 몫이 될 수 있었다. 현장에서 경기를 중계하던 미국 골프 채널은 이런 상황을 17번 홀 티잉 그라운드에서 지켜보며 웃고 있던 신지애의 모습을 비춰줄 정도였다. 그러나 오초아가 저력을 발휘하며 보기 퍼트를 기어이 넣어 공동 2위를 지켰고 이제 부담은 오히려 신지애에게 넘어갔다.

이때까지 이븐파를 치며 공동 5위에 올라 있던 신지애는 이 성적만 유지해도 올해의 선수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1타라도 잃으면 공동 8위로 내려가는 상황. 오초아가 공동 2위를 유지하면 신지애는 최소 7위를 해야 올해의 선수에 공동으로 오르는 희망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17번 홀은 2라운드까지 이번 대회에서 가장 어려운 홀로 악명을 떨치고 있던 곳이었다. 200야드로 거리도 만만치 않은데다 그린의 폭이 좁고 그린에 올리지 못하면 미끄러지게 돼 있기 때문이다. 2라운드까지 평균 타수가 3.33타나 됐다.

부담을 느낀 신지애의 샷은 벙커로 빠졌다. 더구나 오초아처럼 자제가 불안한 상태



'LPGA 투어 챔피언십' 최종라운드 경기를 마치고 올해의 선수상에 선정된 로레나 오초아가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로 벙커샷을 쳐야 하는 상황.

벙커에서 쳐낸 볼은 벙커 턱을 겨우 넘어 러프에 떨어졌다. 끝내 통한의 한 타를 잃고 말았다. 위기를 보기도 남긴 오초아는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버디를 잡으며 4년 연속 올해의 선수 등극을 자축했고 반면 신지애는 역시 두 번째 샷까지 공을 그린에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침인 버디를 시도했으나 볼은 야속하게도 컵을 살짝 비켜갔다.

신지애의 경기를 지켜보던 오초아는 지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었다. /연합뉴스

함평에 신지애 기념비 세운다

세계적인 골프 스타 신지애 선수를 배출한 함평에 신 선수의 기념비가 세워진다.

함평군은 24일 2009년도 LPGA 최연소 신인왕과 상금왕, 다승왕 등 3관왕을 확정지은 함평골프고 출신 신지애(21·미래에셋) 선수의 위업을 기리고자 함평군 함평읍 함평엑스포공원에 신 선수의 기념비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로 270cm, 너비 150cm, 높이 270cm 규격의 기념비는 화강석 등으로 골퍼채 등

을 형상화해 만들게 되며 청동으로 제작한 신 선수의 흉상이 주요 경력과 함께 세워진다.

군은 조각가 이경운씨에 제작을 의뢰해 다음 달까지 기념비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신 선수와 LPGA 진출 첫해에 맹활약해 신인왕 등을 차지함으로써 대한민국과 함평의 명예를 드높인 점을 기려 기념비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광 출생으로 흥농초등학교 5학년



함평군이 제작한 신지애 모형 기념비.

때 골프를 처음 시작한 신지애는 흥농중학교와 함평골프고를 졸업했으며, 충분한 배수를 받을 수 없는 녀석지않은 가정형편속에서도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했다. /함평=황은화기자 hwang@